

‘입을 위한...’ 올해도 제창 거부 “누굴 위한 정부냐” 지역민 분노

일방통행식 정책에 5·18 35주년 결국 ‘반쪽 기념식’ 파행 강기정 의원 “정부 몽니에 국회 결의안도 소용없다” 비판

정부는 끝내 지역민들의 바람을 외면했다. 지역민들이 5·18 35주년 민주화운동 기념식 ‘불참’을 경고하며 기념식 제창(齎唱)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기로 사실상 결정했다. 국회가 ‘입을 위한 행진곡’의 기념곡 지정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한 지 2년 가까이 흘렀지만, 기념곡 지정도, 기념식 제창(齎唱) 요청도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등 ‘일방통행식’ 정책을 굽히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35년만에 최악의 상황에서 치러지게 될 지 모른다는 위기감 속에 ‘국민 대통합’을 위한 정부의 통 큰 결단을 촉구했던 지역민들은 허탈함에 빠졌다.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3일 국가보훈처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제 35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계획(안)’ 식순에는 ‘입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이 아닌 합창으로 적시했다.

기념식은 개식선언을 시작으로 국민의례·헌화 및 분향·경과보고·기념사·기념공연·폐식 등으로 진행되며 ‘입을 위한 행진곡’과 ‘5월의 노래’ 합창이라는 기념공연 내용이 포함됐다. 기념공연은 성악가 2명과 합창단 40명이 오케스트라

반주에 노래하는 것으로 돼 있다. 정부가 올해 기념식에도 ‘입을 위한 행진곡’의 제창 여부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최종적으로 결정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입을 위한 행진곡’은 5·18 기념식이 지난 2003년 정부 행사로 승격된 뒤 2008년까지 본 행사에서 공식 제창돼 왔으나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이후 현재까지 정부의 반대로 5·18 기념식 공식식순에서 제외되면서 제창이 아닌 합창으로 대체해 왔다.

특히 2013년 6월 27일 국회에서 ‘입을 위한 행진곡’의 5·18 기념곡 지정 촉구 결의안이 의결됐지만 정부는 기념곡 지정에 부정적 태도를 보여 왔다.

5월 관련단체와 행사위 등은 그간 ‘입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35주년 기념식 공식식순에 포함해 달라고 보훈처에 수차례 요구해왔고 거부할 경우 별도의 기념식을 치르겠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는 점에서 보존처가 또 다시 피해당사자, 유가족 등이 불참하는 ‘반쪽’ 기념식을 불러왔다는 비판도 받게 됐다.

사전적 의미의 합창은 여러 사람이 서로 화성을 이루면서 다른 선율로 노래를 부르는 것이고, 제창은 여러 사람이 다

같이 큰 소리로 동시에 노래를 하는 것이다. 얼핏 비슷한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공식행사 때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 제창의 경우 행사 참가자 전원이 함께 일어나 노래를 부르는 형식이지만, 합창은 무대 위의 합창단이 노래를 하되 참가자 모두가 일어나 따라 부를 필요는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게다가 VIP라도 참석하는 경우에는 차이가 확연하게 두드러진다. 합창을 할 땐 영상 카메라가 합창단에 포커스를 맞추지만, 제창을 하면 VIP 등 참석자들을 비추면서 시청자들은 TV 생중계로 이 모습을 지켜볼 수 있게 된다.

강기정 의원은 “현 정부가 5·18 노래인 ‘입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끝내 거부했다. 국회 결의안도, 각계의 요청도 바근해 정부 몽니 앞엔 소용없다”며 “35주년 기념식이 두 개의 행사로 개최되는 것은 전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으로 스스로 국론분열을 조장하는 것. 지금이라도 이 노래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줘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기념식 도중 진행되는 경과보고도 (사)5·18 민주유공자유족회 등 5월 관련 3개 단체의 회장이 번갈아가면서 맡았으나 각 단체 회장들이 보존처 주관의 기념식에 불참기로 하면서 경과보고도 다른 단체장이 대체할 것으로 보인다.

이충행기자 galee@kwangju.co.kr



고교생들 주민증 발급 광주 북구청 주민자치과 직원들이 13일 서강고등학교에서 만 17세 이상 학생들을 대상으로 주민등록증을 발급해 주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서울서 예비군 훈련 중 총기난사 5명 사상

현역 때 B급 관심병사, 본인은 자살

서울에 있는 육군 예비군 훈련장에서 13일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예비군 2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육군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44분께 서울시 서초구 내곡동에 있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52사단 송파·강동 동원예비군 훈련장에서 예비군 최모(23)씨가 총기를 난사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총기 난사로 주변에 있던 예비군 4명이 부상했다. 이들 가운데 박모(24)씨는 중상을 입고 삼성의료원으로 이송됐으나 치료 도중 숨졌다. 현재 생존 중인 부상자 중 윤모(24)씨는 중상이며 황모(22)·안모(25)씨

등 나머지 2명은 경상으로 알려졌다.

이날 동원 예비군 훈련에 소집된 인원은 210년대 2대대 538명, 기동중대 113명 등 모두 651명이었으며 12일 입소해 14일 퇴소할 예정이었다고 육군은 전했다.

총기를 난사한 최씨는 당시 10발이 든 탄창을 K-2 소총에 끼운 뒤 1발을 영점사격하고 나서 옆 예비군을 향해 7발을 난사한 것으로 잠정 조사됐다. 대위 등 현역 9명이 사격을 통제하고 있었지만 최씨의 행동을 제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최씨는 현역시절 B급 관심병사로 분류돼 부대를 여러 차례 옮긴 것으로 나타나는 등 특별관리가 필요했으나 일반 병

사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안전대책 없이 실탄을 지급하고 사격 훈련을 하도록 한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그는 병적기록상 우울증 치료 기록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돌발 행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작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최씨가 어떤 이유로 극단적인 행동을 보였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번 총기 사고로 예비군 훈련장에서 진행되는 사격훈련의 통제방식과 실탄 지급 방식도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총기를 난사한 최씨가 훈련을 받던 부대는 영점사격을 위해 10발이 든 탄창을 지급했지만 다른 부대의 사정은 다르다고 군의 한 관계자는 전했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의료기관, 일반의원 1769개로 최다

치과·한의원 순

광주·전남 의료기관 중 일반의원이 가장 많고 치과, 한의원 등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의료기관 증가 폭은 치과가 일반의원을 크게 앞질렀고 요양병원은 100개소 이상 대폭 늘었다. 13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월(광주시)과 3월(전남도) 기준,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광주 1936개소, 전남 1861개소 등 3797개소다.

이 중 일반의원이 1769개소(광주 880개소·전남 889개소)로 전체 의료기관의 46.6%

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치과(치과병원포함)가 1006개(광주 575개소·전남 431개소)로 전체 의료기관의 26.5%를 차지했다.

한의원(한방병원포함)은 713개소(광주 343개소·전남 370개소)로 전체의 18.8%를 차지했다.

이어 요양병원 115개소(광주 41개소·전남 64개소), 일반병원 141개소(광주 69개소·전남 72개소), 종합병원 44개소(광주 22개소·전남 22개소), 정신병원 15개소(광주 4개소·전남 11개소) 등이다.

광주·전남 의료기관 수는 지난해 2005년(3017개소)과 비교해 10년 동안 779개소(25.8%)가 증가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오락 대신 운동한다면 청소년 폭행

○한 50대 남성이 자식의 매장을 찾은 10대 청소년이 영업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먹살을 잡았다가 경찰서행.

○13일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박모(54)씨는 지난 12일 밤 9시40분께 동구 동명동 자선이 운영하는 오락실을 찾은 김모(16)군이 인형뽑기 기계 앞에서 팔굽혀펴기를 했다는 이유로 먹살을 잡고 혼드는 등 폭행한 혐의.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김군) 친구 3명과 오락실에 들어와 하라는 게임은 하지 않고 오락기에 기대 팔굽혀펴기를 하기에 운동할 거면 나가서 하라고 처음엔 말로 좋게 타일렀다”면서 “그런데도 그 친구들이 내게 소리치며 대들기에 좀 잡아챌 것일 뿐”이라고 억울함을 호소. /백희준기자 bhj@

폭발물 허위 신고로 112명 출동한 경찰 첫 민사소송 결과는 “개인적 법익 침해 아니다” 2680만원 손배소에 “11만원 지급”

11만6623원.

법원이 공공기관 등에 폭발물이 설치됐으며 허위 신고, 경찰력을 낭비한 신고자에게 배상 판결한 손해배상 비용이다. 광주 경찰은 110명 넘는 인력이 투입된 데 따른 경찰력 낭비를 감안, 268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국가 외 출동 경찰들의 정신적 스트레스 등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광주지법 민사 11단독 김대권 판사는 광주서부경찰 A 경위 등 경찰관 112명이 국가와 공동으로 허위신고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씨의 허위신고로 경찰이 출동하는 과정에서 차량 유류비로 11만6623원이 사용됐다”면서 “B씨는 국가에 적극적 손해를 11만6623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

시했다.

B씨는 지난해 3월 31일 경찰청 112 신고센터 인터넷 홈페이지에 스마트폰으로 ‘서울 여성부 건물과 광주 한 교회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글을 봤다’는 허위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입건,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다. 이 사건은 112 허위 신고에 광주 경찰이 실제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첫 케이스였다.

광주경찰은 폭발물 처리반(16명)이 긴급 출동한 것을 비롯, 서부경찰 61명 등 112명이 투입돼 2시간 동안 수색 작업을 벌였고 허위신고로 인한 출동 경찰관들이 겪은 극심한 업무적 스트레스, 정신적 손해를 겪은 점 등을 들어 268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제기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계급에 따라 50만~10만원 까지 차등화한 위자료를 산정, 제시했었다.

재판부는 그러나 “B씨 허위 신고로 출동 경찰들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허위 신고로 침해되는 건 국가적 법익인 공무(公務) 자체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의 개인적 법익이 아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업무에는 어느 정도 위험성이 내재돼 허위 신고로 폭발물 처리 업무를 처리하게 됐다는 것만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대상이 되는 정신적 손해를 입게 됐다고 볼 수 없다 ▲허위 신고 행위는 개인 신체, 재산 등의 법익 침해를 가져오는 행위가 아니고 허위 신고 의제는 형사처벌을 통해서도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고 보이며 이미 형사 처벌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지욱기자 dok2000@

신축 원룸 매매

관심순전

전대정문 2분! 후문 2분(신축 4층건물)
월세 인기좋은 / 임대 걱정없음

룸12개, 올 대리석시공, 신축
(1층점포 1개, 2~3층룸 10개, 4층주방 1개, 옥탑)
옥상에 피라사 설치

월수익 500만
매매가 6억 7천

추천 물건

- ① 전대정문 2분 룸20개 (1층상가2칸) 월수익 700만 매매가 7억8천
- ② 북구 용봉지구 상대 2분 코너 룸 21개 (상가2, 주택1) 엘리베이터 있음. 월세 800 매매가 11억
- ③ 북구 두암동 동신대 원룸 19개 (상가1, 4층 주택) 월세 850 매매가 11억 5천
- ④ 수완지구 상가매매 (4층중 3층) 월수익 150만 매매가 2억5천

010-6832-9700
010-6834-4800

상가건물매매

〈나주시 삼영동 2층 건물〉

1층 6칸, 2층 2칸
토 205평, 건 47평
나주 영강초교 정문 앞
학원건물 적합

※학원 / 도장 / 분식점 운영적합

월수익 200만 매매가 3억

① 서구 중흥동 상가 5층 학원건물 동부경찰서 앞, 매매가 15억	⑤ 수완지구 모아메이플 4층중 3층 85평보 2천 월 200만 영 2억5천 매매가 3억5천
② 서구 상무지구 정연3층 상가 30평(보 1천 월수익 70만) 매매가 1억2천	⑥ 남구 배운동 대흥1차 APT, 24평보 1천 월 60만 가격저렴 리모델링 완료 매매가 1억1천300만
③ 서구 쌍촌동 원룸 11평 윤천역 3분 보200만 월32만 매매가 4천만	⑦ 서구 상무지구 수림오피스텔 6층 23평보 3천 월 32만 매매가 8000만
④ 서구 상무지구 5층건물 월세1천8백 매매가 20억	⑧ 상무지구 수림오피스텔 13평 매매가 5천만

010-6670-9800
010-6834-4800

상무지구

〈사무실 임대5층〉

상무지구
사무실임대
5층

- ☑ 상무지구 중심 금융가 도로 현대자동차 뒷편
- ☑ 이면도로 코너
- ☑ 엘리베이터 완비, 무료주차4대
- ☑ 주변 주차시설 300대 완비됨

☐ 즉시입주가능, 내부시설완비
☐ 학원적합, 보험사무실 적합

적극추천 ★

임대가 보3,000만
월 140만

062-527-7600
010-7384-7800

(주)대신경매

이제 경매는 대중화 시대
일할부터 매매 임대까지

수익성 상가 (근린 상가)

- ①서구 금호동 7층상가 (295㎡) 감정가 6억5천/최저가2억9천(유용상가)
- ②북구 봉곡동 만성빌딩(8층중 5층) 588㎡, 27,261,18㎡ 감정가 14억/최저가9억46천(총상당)
- ③북구 중흥동 써너스컨대(10층중 1층) 20,032㎡, 2,446,96㎡ 감정가12억3천/최저가9억3천(상가)

수익성상가(근린주택)

- ①광진구 소촌동 (토400㎡, 건284㎡)감정가3억7천/최저가1억3천(세차장,카센터)
- ②서구 양동 (180.5㎡, 건259.2㎡)감정가13억3천/최저가2억3천(2층건물/1층상, 2층주택)
- ③목포 상정동 (토63.75㎡, 건119.2㎡) 감정가1억3천/최저가17천100만 (3층건물/1층점포, 2~3층주택)

수익성 상가 (근린 시설, 통건물)

- ①나주송원동(복합상가)건물(예식장) (토847.4㎡, 건11735㎡)감정가15억2천/최저가68억
- ②전주완산구호지동 (토502,453㎡, 건689,083㎡)감정가125억/최저가13억(3층상가건물)
- ③광양시중동 (토767㎡, 건3276,78㎡) 감정가126억/최저가21억(6층건물)

공장 / 주유소 / 모텔 / 특수물건

- ①광진구하남/공장 (토174.3㎡, 건2635,72㎡) 감정가14억/최저가6억5천
- ②북구 중흥동(토300㎡, 건1235,92㎡)감정가11억/최저가6억2천 (6층모텔)
- ③북구 월동동/공장 (토지매각제외, 건1458.9㎡) 감정가10억/최저가10억
- ④광진구 장목동/공장 (토지매각제외, 건114,46㎡) 감정가36억/최저가29억
- ⑤광진구 월계동(무인텔 (토1522.5㎡, 건1999.65㎡) 감정가34억/최저가34억

바닷가 펜션 경매추천 물건

- ⑥경남 고성시회화면 (토13665㎡, 건2667,16㎡) 감정가43억/최저가8억 (펜션바다근처전통갯마을 시설중음(목수물건))

★ 경매학원에서 배우실 분 환영
★ 경매직원구함 (남, 여)
★ 경매컨설팅하실분 (상무지구, 운암동, 법원)

010-6670-9800 / 062-226-4600

경매교육(매주 초 개강)

- ①경매 기본교육 + 실전투자 교육
- ②VP실전반(특수물건, 지분)

① 오전반 11시 ~ (기본+실전)
② 오후반 19시 ~ (기본+실전)
③ 엔피엘 교육, 특별반(상담가능)
(교육동시에 실전투자하여 수익창출 가능)
★ 경매 기본부터 입찰매매까지
경매 최초! 원스톱진행(입찰~매매~건실~토록~개발~기획)

컨설팅 직원구함
-경매학원, 경매 컨설팅 같이 근무 할 직원 모집합니다. 책상 지원 등

062-382-5500

경매 물건 추천

- 1 서구 금호동 7층상가 (유용상가) 건 296㎡ (상건물음, 시설중음) 감정가 6억6천 → 최저가 2억9천
- 2 전남영광군 법성면 (3층/근린주택) (토144평, 건819평) 1층~2층상가 3층주택(건물 바로앞 도로및 바다) 감정가 10억 → 최저가 4억8천
- 3 광양시 중흥동(근린시설) 토232평, 건991평 (도로접 상가사무실임대적합) 감정가27억→최저가18억

062-527-7600
010-7384-7800